

## 대전 · 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 동 준

(경기개발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 연구원, kdj0113@gri.re.kr)

김 양 중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 목 차

< 요 약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분석자료
- III. 대전·충남의 노동시장 현황
- IV. 노동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VI.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해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성과를 파악하였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첫 직장에 대한 전공일치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참여비율 또한 높은 편으로,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인재양성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 보유개수와 보유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공인영어 시험응시비율과 평균토익성적,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은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대기업취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월평균임금도 가장 낮게 분석되어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아울러 지역내 부족한 일자리 수와 낮은 지역내 취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대기업의 경우 해외연수, 직업교육훈련, 취업프로그램, 공인영어성적이 취업확률을 높여주는 변수였으며 소규모기업까지 포함한 경우 자격증만이 취업확률을 높여주는 변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과 공인영어성적이 임금을 높여주는 주요변수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비율과 공인영어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은 이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대전·충남의 대학들은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좋은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산·학·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실업문제로 인해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 전문대학의 졸업생의 취업과 임금수준은 4년제 대학에 비해 많이 취약한 실정이다.
- 정부의 지원 또한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편중되어 있고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아울러 저성장과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의 도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을 들 수 있으며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과 임금에 대한 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임금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대전·충남의 전문대 졸업생들이 좋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II.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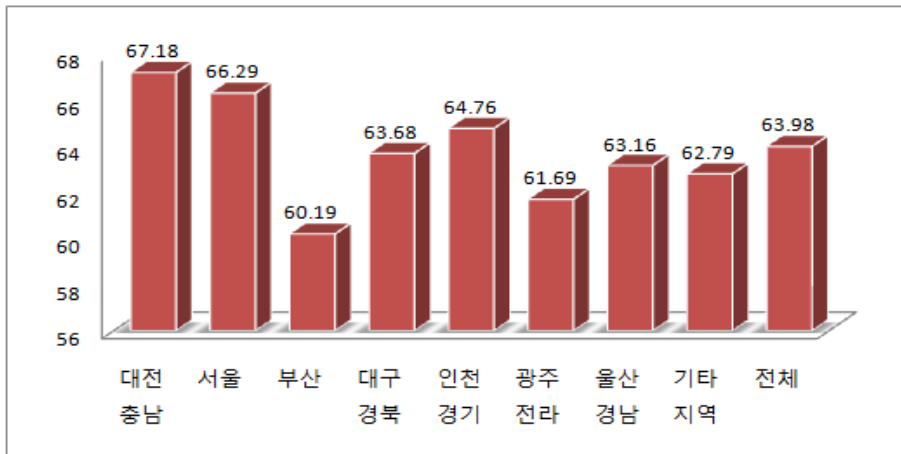
- 대전·충남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7GOMS1)를 이용하였다.
- 2007GOMS1은 2006년 8월 및 200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출신전공 및 진로에 대해 수록한 패널이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매년 1만 8천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신규로 대졸자들을 조사하고 2년 뒤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성과분석, 직무불일치 분석, 인력수급모형 등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조사하는데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총 18,050명의 관측치 중 4년제 대학 12,696명을 제외한 남성 3,044명과 여성 2,310명(총 5,35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대상의 나이는 만19~70세까지 관측되었으며, 만21~29세 사이가 4,232명으로 79.0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 362명, 서울지역 486명, 부산지역 363명, 대구·경북 지역 754명, 인천·경기지역 1,754명, 광주·전라지역 881명, 울산·경남지역 327명, 기타지역(강원·충북·제주) 427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III. 대전·충남의 노동시장 현황

#### 1. 대전·충남 전문대 졸업생의 학습역량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전공일치도는 가장 높음

○ [그림 1]은 전문대 졸업생의 첫직장에 대한 전공일치도에 대한 분석으로, 대전·충남 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전공일치도는 67.18%로 타 시·도 대학졸업생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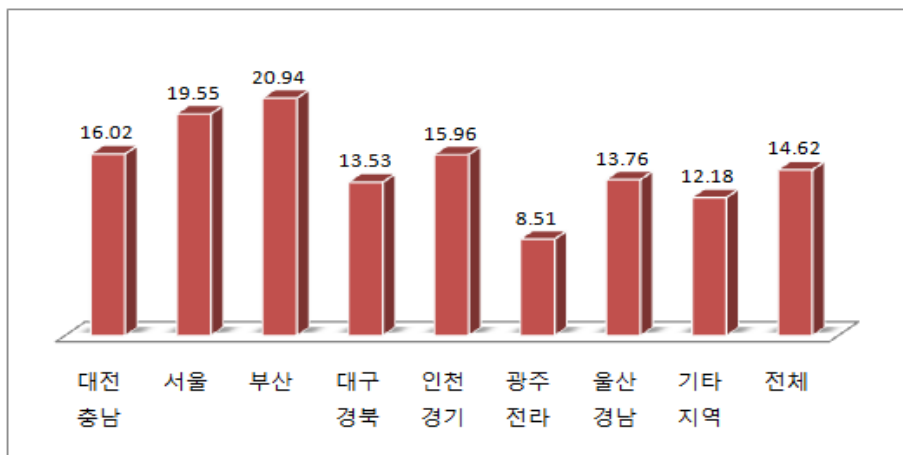


[그림 1] 출신대학 지역별 전공일치도

- 이를 통해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은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가장 충실히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전·충남지역 전문대의 인재양성 기반구축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높은 편

- [그림 2]는 졸업한 대학에서 취업캠프, 직장체험프로그램, 적성검사, 취업박람회, 진로상담 등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16.02%로 부산지역과 서울지역 전문대 졸업생 다음으로 높은 편이며, 전국평균에 비해 1.4%p 정도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2] 지역별 출신대학의 취업프로그램 참여 비율(%)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 보유비율과 보유개수는 높은 편

○ <표 1>은 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sup>1)</sup> 보유비율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 평균 보유개수를 나타낸 표이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 소지 비율은 77.35%로서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지역 전문대 졸업생 다음으로 높았으며, 특히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 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 보유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격증을 보유한 졸업생의 평균 보유개수는 울산·경남지역 전문대 졸업생 다음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은 취업을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자격증 보유비율과 보유개수

지역	전문대 졸업생	자격증 취득	보유비율 (%)	평균보유개수
<b>대전·충남</b>	<b>362</b>	<b>280</b>	<b>77.35</b>	<b>2.59</b>
서울	486	330	67.90	2.39
부산	363	288	79.34	2.54
대구·경북	754	606	80.37	2.49
인천·경기	1,754	1,228	70.01	2.33
광주·전라	881	706	80.14	2.59
울산·경남	327	251	76.76	2.67
기타지역	427	325	76.11	2.42
전 체	5,354	4,014	74.97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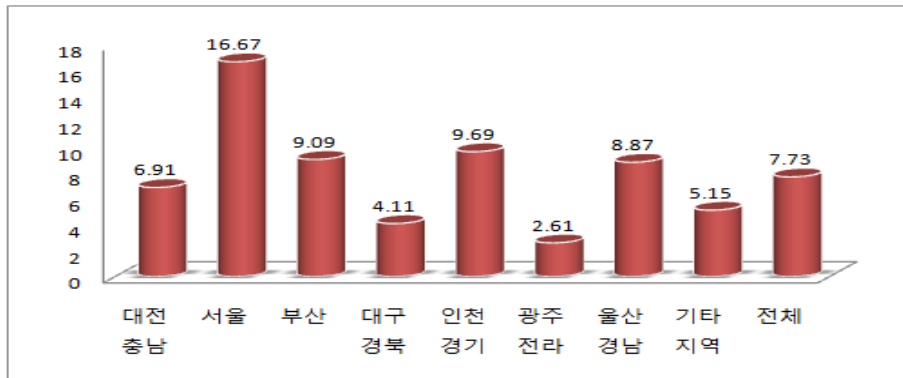
○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지역 졸업생들에게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발견되었다.

1) 운전면허증은 자격증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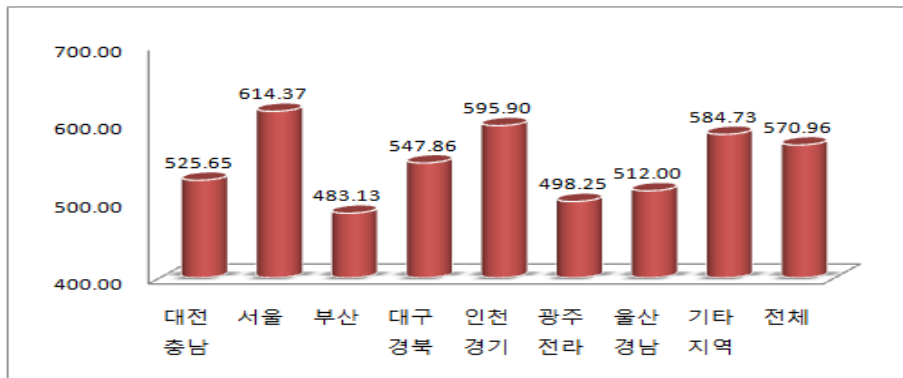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공인영어 성적은 낮은 편

○ [그림 3]와 [그림 4]은 시험응시비율과 평균토익점수를 보여준다.



[그림 3] 출신대학 지역별 영어시험응시비율



[그림 4] 출신대학 지역별 평균토익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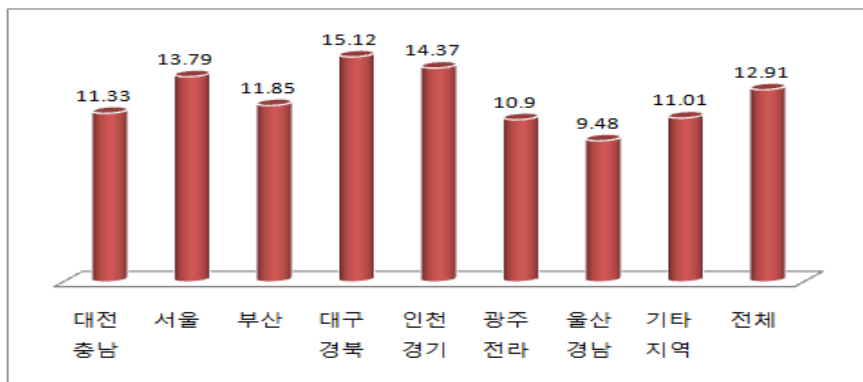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공인영어시험 응시비율은 6.91%로 전국평균 7.73%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토익점수는 525.65점으로 전국평균보다 45.3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의 결과로 볼 때,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이 좋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어학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직업교육훈련 비율은 낮은 편

- [그림 5]는 직업교육훈련<sup>2)</sup>을 받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11.33%로서 대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며, 대구·경북지역 전문대 졸업생과는 3.8%p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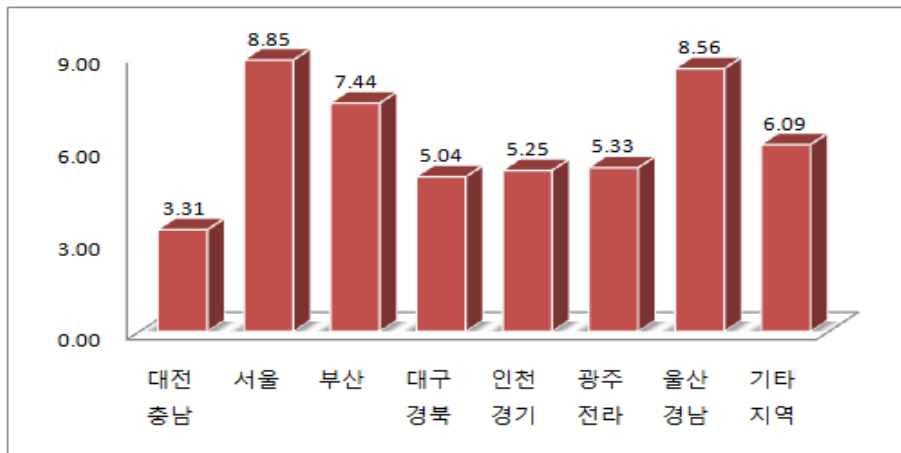
[그림 5]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

2) 직업교육훈련은 직장을 갖기 위한 취업,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취미활동과 학원수강 및 과외 등은 제외 됨

## 2. 대전·충남 전문대 노동시장의 현황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좋은 편이지만 대기업 취업률과 월 평균임금은 낮은 편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1,000명 이상 대기업 취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 중 고용인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72.65%가 취업했으며 단지 3.31%만이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1,000명 이상 기업 종사비율(%)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대기업 취업률이 낮아 타 시·도에 비해 취업시 질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lt;표 2&gt; 출신대학 지역별 회사규모별 종사비율

(단위 : %)

지역	300명 미만	300-999명	1,000명 이상	미취업	계
대전·충남	72.65	6.08	3.31	17.96	100
서울	66.46	7.41	8.85	17.28	100
부산	66.67	4.96	7.44	20.94	100
대구·경북	69.10	7.03	5.04	18.83	100
인천·경기	67.67	5.99	5.25	21.09	100
광주·전라	73.89	3.29	5.33	17.48	100
울산·경남	64.83	8.56	8.56	18.04	100
강원·제주·충북	72.13	5.62	6.09	16.16	100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낮으며, 특히 여성의 임금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이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lt;표 3&gt; 지역별 출신대학 졸업자의 월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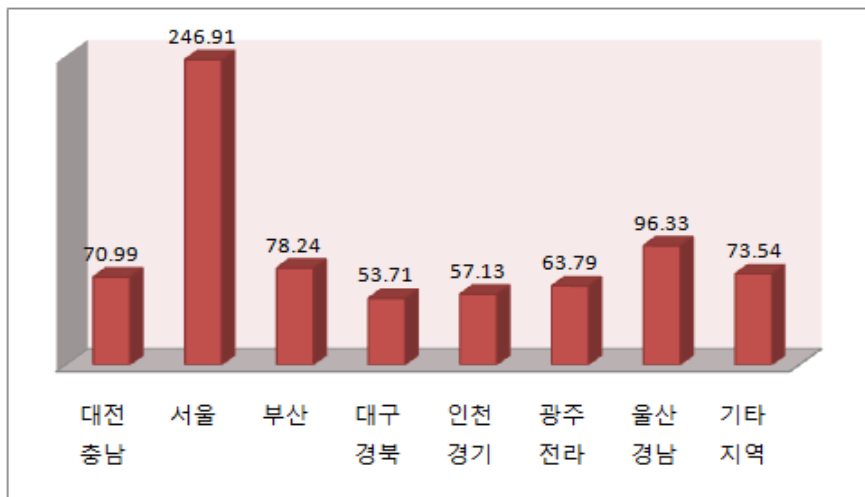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대전·충남	142.20	104.74	125.68
서울	143.73	120.19	128.72
부산	142.53	108.40	129.06
대구·경북	152.77	114.50	139.35
인천·경기	142.79	117.19	131.88
광주·전라	146.27	112.07	130.81
울산·경남	139.74	107.39	127.94
기타(강원·제주·충북)	129.48	140.27	134.29
전국평균	143.59	116.56	131.75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 대비 일자리 비율은 70.99%며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비율은 57.58%

○ [그림 7]은 졸업생 대비 일자리 비율을 나타낸다. 충남의 경우 졸업생 대비 당해 일자리 비율<sup>3)</sup>은 70.99%로, 지역의 노동공급에 비해 지역내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졸업생 대비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지역(246.91%)으로 서울에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울산·경남, 부산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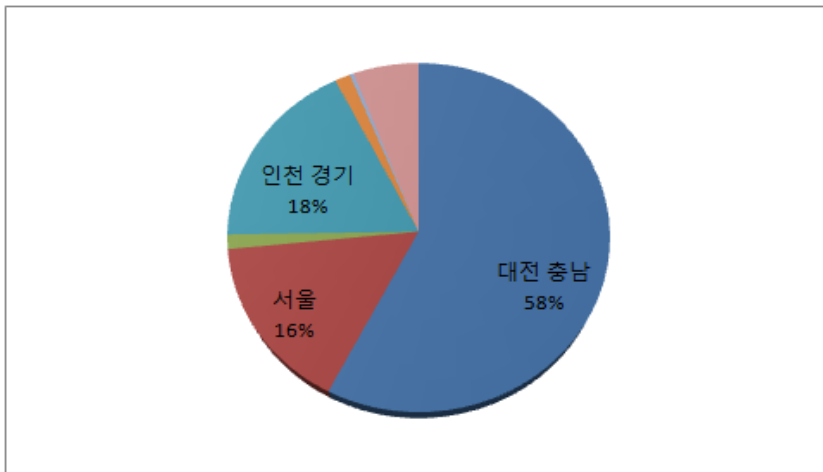


[그림 7] 졸업생 대비 일자리 비율(%)

3) 대전·충남지역 취업자 수/대전·충남지역 졸업생 수

○ [그림 8]과 <표 4>는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취업자와 전체 전문대 취업자의 지역내 취업비율이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취업자 중 57.58%가 동지역에 취업하였고 인천·경기지역으로 취업한 사람은 17.85%, 서울지역으로 취업한 사람은 15.82%으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탈이 높은 편이다.



[그림 8]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취업자의 지역내 취업비율(%)

- <표 4>에서 보면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취업자가 동지역에서 일하는 비중은 인천·경기지역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지역은 부산지역으로서 75.61%의 지역내 취업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과 광주·전라지역 또한 70%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대전·충남지역과 인천·경기지역의 지역내 취업비율이 낮은 이유는 졸업생 중 서울지역 출신비율이 높고 또한 서울과 인접하여 서울로의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4> 취업자중 출신대학 지역내 취업비율

	대전· 충남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울산· 경남	강원·제 주·충북
대전·충남	57.58	1.0	1.39	1.47	1.80	3.85	1.12	3.62
서울	15.82	72.89	1.74	9.31	46.44	10.99	6.69	15.32
부산	1.35	0	75.61	3.27	0.58	0	11.90	0.84
대구·경북	0	0	2.79	61.44	0.29	0	4.83	1.11
인천·경기	17.85	24.38	1.05	9.80	47.52	8.93	4.09	14.48
광주·전라	1.35	1.00	1.39	0.65	0.86	72.94	1.12	0
울산·경남	0.34	0.25	15.33	9.97	0.65	1.51	69.14	0.56
강원·제주·충북	5.72	0.50	0.70	4.08	1.66	1.79	0.74	64.0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IV. 노동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본 장에서는 모든 졸업자를 같은 조건에서 실증분석하여 취업확률<sup>4)</sup>과 월평균임금을 높이는 변수에 대해 분석한 이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같은 조건에서 취업확률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이 있을수록 취업확률을 높여주고 있으며 해외연수경험과 직업교육훈련, 공인영어성적은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높아진 눈높이로 인해 취업대기 기간이 늘어난 이유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취업확률<sup>5)</sup>을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확률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취업확률을 낮추었던 해외연수경험과 직업훈련경험은 대기업취업확률을 높이는 중요변수이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과 특히 공인영어성적<sup>6)</sup>은 대기업취업확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이 분석된 이유는 해외연수, 직업교육훈련, 공인영어성적이 있는 졸업생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으로의 취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어학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월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본 연구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구분 없이 전체 취업확률에 대해서 알아본다.

5) 500명 이상의 회사규모에 근무하는 사람을 1, 1-499명 크기의 회사규모에 근무하는 사람을 0의 더미변수로 분석하였으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구분은 없음을 밝혀둔다.

6) 공인영어성적은 토익, 텡스, cbt, ibt란에 영어성적을 기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해커스토익 홈페이지의 토익, 텡스, cbt, ibt 점수환산표를 참조하여 하, 중하, 중, 중상, 상 다섯 단계로 수준을 나누어 시험성적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연속변수로 설정하였다.



-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어학수준은 대기업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이자 임금수준도 높이는 중요변수로 분석되었다.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충남의 전문대 졸업생의 직업교육훈련 비율과 어학수준이 낮았는데 이를 보완한다면 대기업 취업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임금 실증분석

설명변수	전체 취업분석	대기업 취업분석	설명변수	임금분석
성별더미(기준:남성)	-0.410***	-0.010	성별더미(기준:남성)	0.151***
나이	0.252***	-0.087*	나이	0.035
나이제곱	-0.003***	0.001	나이제곱	-0.001
해외연수더미	-0.366***	0.418*	해외연수더미	0.038
취업사교육더미	-0.175	0.094	취업사교육더미	0.016
자격증더미	0.163*	0.054	자격증더미	0.019
직업교육훈련더미	-0.416***	0.336**	직업교육훈련더미	0.088**
취업프로그램더미	0.110	0.262*	취업프로그램더미	-0.017
공인영어성적	-0.160**	0.518***	공인영어성적더미	0.044*
Intercept	-1.985**	-2.006**	Intercept	
-2 Log Likelihood	-1907.85	-1396.17	lambda	
N	4,977	4,319	N	1,797

주: 1) 취업분석은 로짓모형, 임금분석은 헤크만의 표본선택모형으로 분석함.

2) 취업분석의 종속변수는 취업여부, 대기업취업여부, 임금분석의 종속변수는 로그월평균임금임.

3)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 표준오차값, 선택식의 프로빗 추정결과는 지면상 생략하였음.

4) 각 분석의 인적속성, 지역대학속성과 임금분석의 기업속성 변수는 지면상 생략하였음.

5)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결과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7GOMS1』

## VI. 결론 및 시사점

구분		대전·충남의 노동시장
학생 역량	장점	높은 전공일치도 높은 취업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비율 높은 자격증 보유비율
	단점	낮은 영어성적 낮은 교육훈련비율
노동시장	문제점	낮은 대기업 취업률 노동공급과잉(부족한 지역내 일자리) 낮은 지역내 취업률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첫직장에 대한 전공일치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참여비율 또한 높은 편으로,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인재양성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 보유개수, 보유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공인영어 시험응시비율과 평균토익성적,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은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대기업취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월평균임금도 가장 낮게 분석되어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아울러 지역내 부족한 일자리 수와 낮은 지역내 취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확률을 높이는 변수	임금을 높이는 변수
대기업	해외연수	
	직업교육훈련	
	취업프로그램	
	공인영어성적	
전체기업	자격증	직업교육훈련
		공인영어성적

- 대기업의 경우 해외연수, 직업교육훈련, 취업프로그램, 공인영어성적이 취업확률을 높여주는 변수였으며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경우 자격증만이 취업확률을 높여주는 변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과 공인영어성적이 임금을 높여주는 주요변수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비율과 공인영어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은 이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고용을 창출할 기업들이 있는 주요도시에 소재한 대학들을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인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노동시장 진입 후 받는 임금에서도 수도권대학 출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연구중심보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교육중심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고, 그 외의 지원자들이 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학에 집중됨으로서 대전·충남권 대학은 뛰어난 인재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그러나 대전·충남 지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세종시 등 입지여건으로 볼 때 많은 외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를 유치하고, 지원하고, 이들이 다시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
- 또한 수도권 소재의 대학은 고교생 수급이 원활하고 취업 및 산학협력이 유리한 지역적 입지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충남권 대학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증분석 시 취업확률과 임금수준을 높이는 공통 변수였던 직업교육훈련과 영어성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또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도 대기업 취업확률을 높이는 주요 변수로 분석됨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대학은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어와 직업교육훈련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도권 소재의 대학과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김 동 준, kdj0113@gri.re.kr  
경기개발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 연구원  
Tel. 031-250-3240

김 양 중, kyj0509@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4

◆ 참 고 자 료 ◆

- 송석두(2003), “충청남도과 지역 내 대학의 협력실태와 과제”,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제 12권, pp 123-150.
-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 2호, pp 1-27.
- 정동섭·강인철(2007), “대기업의 지방대학 졸업생의 채용기피의 원인규명과 지방대학의 바람직한 인재육성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제14권 제2호, pp 161-174.
- 이상록(2007), “지방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실태와 현황”, 『지역발전연구』, 제7권 제1호, pp 253-270.
- 김동준·김양중(2010),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리포트 제30호, pp 1-19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7GOMS1”
- Heckman, J.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Vol. 47, pp 153-161.
- Lisa M. Lynch(1989), "The Youth Labor Market in the Eighties: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Probabilities for Young man and wo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1, No.1 pp 37-45.

## 충남리포트 리스트

구분	보고서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준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http://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